

아이돌 멤버들 '연기돌'로 변신하다

KBS 웹 예능 프로그램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 ... 고민·꿈·인생 담아 직접 제작하는 과정 담아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연기를 소재한 한 예능 프로그램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신화'의 예락을 시작으로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제국의아이들'의 임시완, 비썬에이의 수지 등 연기돌로 이미 자리매김한 아이돌들은 이미 수두룩하다.

하지만 오디션 요리 등 트렌드에 아이돌을 연결시켜온 예능 프로그램의 경향이 연기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KBS는 웹 예능 프로그램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연출 고국진)'을 론칭해 방송하고 있다. 걸그룹 멤버 7인이 자신들의 고민과 꿈, 인생을 담아 한 편의 드라마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담은 '드라마 미션 버라이어티'를 포방한다.

무대 위 화려한 걸그룹의 세계와 달리 질투, 배고픔, 정신문제 등으로 한숨짓는 실상을 그린다.

레드벨벳 슬기, 아이오아이 출신 전소미, 마미무 문별, 러블리즈 수정, CIVA 김소희, 오마이걸 유아, 소나무 디아나 등 인기 걸그룹 멤버들이 총출동한다.

방송 중인 K 스타 예능프로그램 '내가 배우다'는 아이돌 연기 대결을 포방한다. 차세대 연기돌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연기 대결 이후 즉석에서 순위가 매겨지는 형식이다. 우승자는 IQ 신작 드라마에 캐스팅 된다.

AOA의 찬미, 내인뮤지스 금조, 에이프릴 나옴, 모모랜드의 낸시, 매드타운의 조타, 크나큰의 박승준, 빅톤 정수빈, 마이틴 송유빈 등이 출연한다.

지난달 종영한 tvN 드라마 '그녀는 거짓



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이모리스에서 열린 웹드라마 '아이돌 드라마공작단' 제작발표회에서 레드벨벳 슬기(왼쪽부터), 소나무 디아나, 러블리즈 수정, 마미무 문별, 아이오아이 전소미, 오마이걸 유아, CIVA 김소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말을 너무 사랑해'에 출연한 레드벨벳의 조이, 7월 방송 예정인 KBS 2TV 드라마 '학교 2017'의 세정 등 여전히 차세대 연기돌을 꿈꾸는 아이돌들의 드라마, 영화 출연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이돌이 연기를 하는 것 자체를 소재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돌의 배우로서 활약이 자연스러워진 것과 팬덤으로 인해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오는 시청률 그리고 화제성 등이 우선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숫자가 10명 안팎으로 고정, 무대 위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멤버들이 생기고 당사자와 회사 등이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면서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고국진 PD는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 제작발표회에서 "아이돌 멤버들이 빛나기 전에 빛을 쬐야 하는 상황이 있고 음지에 서 노력하는 연습생들도 많다"며 "프로그

램을 통해 그런 노력과 애환이 조명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타그룹 멤버들이 함께 드라마를 만들고 연기를 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이돌 기획사 관계자는 "아이돌 그룹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타 그룹과 어울릴 기회가 많지 않은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응원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북교육청, 전국공무원야구대회 준우승

전북도교육청 야구동호회가 제4회 함평천지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함평야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조예선에서 2승을 거둬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전남교육청, 4강에서 광주교도소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결승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패해 아깝게 준우승을 차지했다.

정재욱 선수(도교육청 인성간갑과)가 이번 대회 우수선수상을 차지했다.

도교육청 야구동호회 신환 감독은 "창단된 지 3년째인 우리 야구팀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선수들 모두가 팔팔 뭉쳐 대회를 준비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라며 "전북도교육청의 이름을 빛낼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전남 함평군체육대회가 주최하고 함평군야구협회가 주관해 전국 공무원 28개팀 500여명이 참가해 6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됐다.

/정해은기자



익산시청 육상선수단 전국육상경기선수권 금메달 4개, 은 2개 획득

익산시청 육상선수단이 최근 경상북도 김천 육상운동장에서 열린 제71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실업 최강팀의 위용을 재확인했다.

대회마다 우승을 차지하며 전성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여자 중거리 신소망(24)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도 800m에서 2분 9초, 1500m에서 4분 37초의 성적으로 2관왕에 올랐다.

조혜림(30) 선수도 여자 원반던지기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고 이혜필(28) 선수는 지난 대회에 이어 여자 창던지기 종목에서 아쉽게 2위에 머물렀다.

올해 입단한 정다운 선수(18)와 김영민 선수(18)는 각각 해머던지기 1위, 멀리뛰기 2위를 차지해 익산시청 육상부의 미래를 더욱 밝게 했다.

정현을 익산시청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잇따른 승진보를 전하는 선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시민의 자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상민 선수와 정다운 선수는 오는 12월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17 태국오픈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국외선양은 물론 익산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드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빅뱅' 탐 건강 상태, 경찰·가족 입장 엇갈려

경찰, "약에 수면제 성분 들어 있어 잠 자고 있는 것" 어머니, "여전히 의식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주장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쓰러진 채 발견돼 치료 중인 한류그룹 빅뱅 멤버 탐(30·최승현)의 건강 상태를 두고 경찰과 가족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탐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정신을 잃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경찰이 이를 부인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경찰은 5일 밤 "탐이 평소 시 복용하던 약을 과다복용한 것 같다"며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 약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정도 지나 약 성분이 빠지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탐의 어머니는 6일 오전 탐이 입원 중인 이대목동병원에서 "탐이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역시 전날 "탐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이라며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네타즌은 반응 역시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탐의 건강 등에 대해 걱정하는 반응이 나오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정당하게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대목동병원은 이날 오후 4시 브리핑을 열고 탐의 건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탐은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탐은 의무경찰대원 신분에서 직위 해제됐다. 소속은 경찰이지만 복무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탐은 법원으로부터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강제전역된다.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경찰은 탐이 의경으로 복무하는 게 적절한지 재심사를 한다.

재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탐은 전보 조치된 서울경찰청 4기동단에서 남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반면 재복무가 어렵다는 심사결과가 나오면 경찰은 경찰청 육군본부 등을 통해 탐의 직권면직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다해야 한다.

가오계에 따르면 탐은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